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Global Supply Chain Insight



채널 구독하기

Weekly 제146호
2025.04.17.(목)

I. 공급망 주간 이슈 Check!



주요 공급망 이슈

- 중국·광물** 中, 핵심광물인 '고순도 석영'을 법정 광물자원으로 지정
- 인도·공급망** 인도, 美-中 관세갈등 여파에 전자제품 新공급기지로 부상
- 콩고·광물** 콩고, 주석광산 운영 재개 발표에 주석 가격 2개월 내 최저치로 하락
- 칠레·광물** 칠레, 리튬 보유량 추가 확인되어 세계 최대 매장국가 입지 강화

주간 이슈 포커스

- 미국·광물** 미국, 심해광물 비축 통해 핵심광물 공급망 주도권 확대 시도

원자재 뉴스 PLUS

- 철강** 영국, 긴급법안 통해 중국기업이 운영하는 제철소 경영권 장악

II. 월간 공급망



2025년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TE REPORT) 주요 내용

III. 공급망 더 알아보기



- ① EU 옴니버스 패키지 주요 내용과 시사점
- ② 2025 미국·EU 그린성장 전략 변화와 시사점

IV. 공급망 소식통



2025 글로벌 신통상 포럼(~4.18.)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Industrial Supply Chain



한국무역협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에너지경제연구원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공급망 주간 이슈 Check!

주요 공급망 이슈

작성 KOTRA 글로벌공급망실

중국, 광물 중국, 핵심광물인 '고순도 석영'을 법정 광물자원으로 지정

- ☐ 중국 자연자원부는 '고순도 석영'을 중국의 새로운 광물자원으로 공식 지정했다고 발표(4.10.)
 - ▶ 중국은 광물자원법* 실시조례에 근거하여 국무원의 승인을 거치고, 해당 광물을 '광물자원목록'에 등재
 - * 광물자원 안보 확보 및 공급능력 제고를 위해 제정한 법률로, 자원 탐사·개발·증산에 대한 내용을 포함('25.7월부 시행 예정)
- ☐ 고순도 석영은 고온 내구성·내식성 등의 특성으로 인해 반도체 및 태양광 패널 소재 제조 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원자재로, 미국이 약 80~90%를 생산하고 있으며 중국 생산량은 미국의 10% 수준에 불과
 - ▶ 석영은 전 세계에 광범위하게 분포하나 고순도 석영은 미국, 호주 및 러시아 등 특정 지역에서 주로 채굴됨
 - ▶ 고순도 석영이 중국에서도 발견된 이후('20년 허난성, '21년 신장), 중국은 광물자원 공식 지정을 검토해왔으며, 향후 전략적광물자원* 리스트에 포함시키고, 전문 센터를 구축해 개발과 이용, 가공 등을 관리할 계획
 - * 중국 정부가 국가 경제 안보, 국방 안보, 전략 신흥산업의 지속적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원이라고 분류한 광물

핵심 키워드

고순도 석영

전략 광물

출처: 중국 자연자원부(4.10., 3.17.)

인도, 공급망 인도, 美-中 관세갈등 여파에 전자제품 新공급기지로 부상

- ☐ 미국이 중국·베트남 등 외국에서 생산된 전자제품에 높은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뒤,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등, 제도가 시시각각 변화해 관세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대폭 상승
- ☐ 인도는 비교적 낮은 상호관세율을 적용받아 미국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인도가 미국 시장으로 가는 제품의 신규 공급기지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
 - ▶ 애플은 인도에서 조립하는 아이폰 비중을 지난 1년간 60% 늘려 전체의 약 20%를 인도에서 생산했으며 ('25.3. 기준), 향후 인도 생산 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려 관세로 인한 부담을 축소할 예정
 - ▶ 인도의 Super Plastronics, Amber Enterprises 등 전자제품 제조업체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상호관세를 기회로 활용하여 對미국 수출을 늘리고자 수입업체들과 협의하고 있음
- ☐ 인도 전자제품의 대미 수출액이 2025년에 37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등, 미국 관세 변동이 제조업의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

핵심 키워드

전자제품

공급망

출처: The Times of India(4.1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향 세미나(4.7.), Economic Times(4.4.)

콩고, 광물 콩고, 주석광산 운영 재개 발표에 주석 가격 2개월 내 최저치로 하락

- ☐ 지난 3월 중단됐던 콩고민주공화국의 비시(Bisie) 주석 광산*이 운영을 단계적으로 재개한다고 발표
 - * 민주콩고 북키부 지역에 소재한 광산으로, 캐나다 업체 알파민(Alphamin)이 소유하고 있으며 전 세계 주석의 약 6%를 생산함
- ➡ 지난 3월 비시 광산 인근 지역이 르완다의 지원을 받는 M23 반군에 점령당해 치안이 불안정해지면서, 광산 운영이 일시적으로 중단됨
- ➡ 4월 초, 반군이 광산 소재 지역으로부터 철수함에 따라 안전이 확보돼, 주석 생산이 단계적으로 재개될 예정
- ☐ 생산 재개 계획이 발표된 후 런던금속거래소(LME)에서 주석 톤당 가격이 전주 대비 8.3% 하락해 지난 2월 이후 최저치인 29,910달러를 기록
 - ➡ 단, 비시 광산은 생산이 중단된 기간에도 재고를 활용하여 주석 약 4,500톤을 수출했으며 1분기 생산량이 이전 분기와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실제 공급량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은 상황
 - ➡ 주석은 전자제품 및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에 활용되는 원자재로, 가격이 과도하게 하락하는 경우 제조 원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핵심 키워드

주석

비시 광산

출처: 로이터(4.9.), mining.com(4.9.)

칠레, 광물 칠레, 리튬 보유량 추가 확인되어 세계 최대 매장국가 입지 강화

- ☐ 칠레 북부 안토파가스타(Antofagasta) 지역의 염호를 탐사한 결과, 칠레의 총 리튬 보유량은 기존 추정치인 1,100만 톤보다 28% 더 많은 1,405만 톤인 것으로 확인
 - * 라 이슬라(La Isla) 소금평원의 보유량은 추정치 대비 150% 많은 213만 톤, 아길라르(Aguilar) 소금평원은 40% 많은 100만 톤으로 확인됨
- ➡ 이로 인해 기존에는 아타카마 소금평원에 집중됐던 생산기반이 '라 이슬라'와 '아길라르' 소금평원으로 확대되며 리튬 생산량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 국영 광산업체 에나미(Enami)는 '25.5월 파트너를 선정하여 본격적인 공동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며, 현재 포스코·LG에너지솔루션·Lio Tinto·BYD 등 기업들이 투자와 기술협력에 관심을 보이고 있음
- ☐ 미국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칠레는 세계 3위의 리튬 보유국이며(1위 볼리비아, 2위 아르헨티나), 세계 1위의 리튬 매장국가이자, 세계 2위의 생산국임
 - * 보유량(resources)은 채굴·생산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자원의 총량을 의미하며, 매장량(reserves)은 실제 상업적으로 채굴·생산이 가능한 양만을 의미함
- ➡ 이번 발견을 통해 칠레는 전기차 배터리와 신재생에너지 원재료 시장의 핵심 공급국으로서의 입지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음

핵심 키워드

리튬

핵심광물

출처: 로이터(4.8.), Mining Technology(4.8.), USGS Mineral Commodity Summaries 2025

주간 이슈 포커스

작성 KOTRA 글로벌공급망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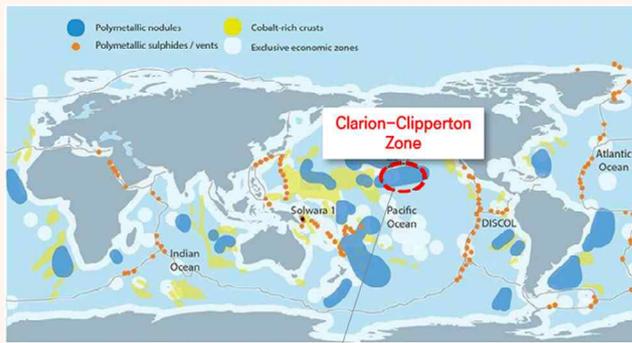
미국, 광물 미국, 심해광물 비축 통해 핵심광물 공급망 주도권 확대 시도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태평양 심해저에 퇴적된 다금속 단괴(Polymetallic nodules)*를 비축하기 위해서 행정명령 초안을 마련 중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4.12일 보도함

- ▶ 이는 심해광물 채굴권을 확보하고 정련 시설 마련을 촉진하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하며, 미국이 핵심 광물 자원의 자급률을 제고하여 공급망 안정성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
- ▶ 지난주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정책에 대응하여 희토류 금속 7종에 대한 수출통제를 발표하였으며, 이로 인해 미국은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광물 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짐

* 중국은 세계 정제 희토류 생산의 약 68%(약 270,000톤)를 차지하며, 미국은 약 11.6%(약 46,000톤)로 2위를 차지함

다금속 단괴의 분포 및 특성



태평양 중부, 하와이와 멕시코 서해안에 위치한 Clarion-Clipperton Zone은 전 세계에서 가장 넓고 풍부한 다금속 단괴 매장지로, 약 30억 톤 이상의 단괴가 매장되어 있으며, 니켈·코발트·구리·망간 등 주요 금속의 농도 또한 매우 높음



다금속 단괴(Polymetallic nodules)

- 망간단괴라고도 하며, 감자모양의 흑갈색 타원형 덩어리로, 해수와 퇴적물에 있는 금속 성분이 해저면에 침전되며 형성됨
- 내부에는 화석, 상어 이빨 등 다양한 물질이 핵으로 존재하며, 그 주위를 망간과 철 산화물이 동심원상으로 층을 이루며 성장하나, 성장속도가 매우 느려, 100만년에 3~5mm 정도 자람
- 망간을 비롯한 니켈·구리·코발트·몰리브덴·바나듐·티타늄·이트륨·란탄·네오디뮴 등 40여종의 금속 성분과 희토류 금속이 함유됨

미국 핵심광물 자급 확대 추진 내역

구분	내용
심해광물 채굴 신속 추진을 위한 행정명령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 백악관은 국제해역에서의 심해광물 채굴과 관련해 UN 산하 국제해저기구(ISA)의 검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검토 중임 · 상기 행정명령이 통과되면, 채굴업체들은 ISA를 우회하고 미 상무부 산하의 국립해양대기청의 채굴 규정에 따라 허가받을 가능성이 높음
그린란드 매입 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를 매입해 심해광물과 희귀 금속에 접근하고자 시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경제 안보를 강화하고, 채굴·정련·가공 밸류체인을 구축해 광물 공급망을 내재화하고자 함 · 그린란드에는 희토류·구리·니켈·코발트·금·플래티늄·몰리브덴·티타늄 등 이차전지, 반도체와 같은 첨단산업 및 방위산업에 필수적인 자원이 대규모로 매장된 것으로 알려짐
우크라이나에 광물자원 접근권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군사·경제적 지원의 대가로 우크라이나의 광물 자원에 대한 접근권을 요구한 바 있으며, 양국은 희토류 및 핵심광물 협정 체결을 추진 중임 · 우크라이나에는 리튬·희토류·티타늄·망간·니켈·우라늄 등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자원이 매장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22년 러-우 사태 발발 이후 자원의 상당 부분이 러시아 점령지에 위치하게 됨

핵심 키워드 심해광물 다금속 단괴

출처: 파이낸셜 타임즈(4.12.), 로이터(4.1., 3.1.), USGS Mineral Commodity Summaries 2025

◆ 원자재 뉴스 PLUS

작성 KOTRA 글로벌공급망실 | 참고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S,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철강 영국, 긴급법안 통해 중국기업이 운영하는 제철소 경영권 장악

- 영국 의회는 영국 내 유일한 원료 제철소인 스컨소프(Scunthorpe) 제철소의 가동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원자재 조달 등 제철소 운영에 직접 관여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안을 긴급 채택(4.12.)
 - ▶ 스컨소프 제철소는 중국 징예(Kingye) 그룹 소유의 브리티시스틸사가 운영하고 있으나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폐쇄가 논의되었으며, 징예그룹은 영국 정부가 5억 파운드 규모의 구제금융을 제시했음에도 거부
 - ▶ 앞서 브리티시스틸 노동조합은 징예그룹이 철강 제조에 필요한 철광석, 석탄 등 원자재에 대한 주문을 취소했다고 밝혀, 긴급 조치 없이는 스컨소프 제철소가 수일 내에 폐쇄될 수 있다는 우려를 야기
- 출처: Financial Times(4.12.)

주간 원자재 가격 동향 (4월 2주)

비철금속 | 中 경기부진에 따른 동 가격↓, 美 관세리스크 및 주요국 생산능력 확대로 니켈 가격↓

품목	연평균 (U\$/톤)			주간평균 (U\$/톤)		
	'24년	'25.1~3월	전년비(%)	4.1주	4.2주	전주비(%)
동	9,147	9,340	2.1	9,440	8,856	△6.2
니켈	16,812	15,571	△7.4	15,612	14,410	△7.7
아연	2,779	2,838	2.1	2,759	2,599	△5.8

* 자료원: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S 등

- (동) 4.9일 美 상호관세 부과 발효로 세계 무역갈등 우려가 심화되고, 중국의 경기지표 둔화 및 페루 증산 전망으로 전기동 가격 하방 압력 발생
- ▶ 다만, 美의 中을 제외한 상호관세 90일 유예에 따른 리스크 완화로 인해 상기 하방 압력 상쇄
- (니켈) 美-中 양국 간 고율관세 부과로 무역갈등이 심화 및 주요국 생산능력 확대에 따른 공급과잉 우려 및 재고량 증가로 가격 하방 압력 발생

철강 | 美-中 무역갈등 심화 및 中 경기지표 부진으로 철광석 가격↓

품목	연평균 (U\$/톤)			주간평균 (U\$/톤)		
	'24년	'25.1~3월	전년비(%)	4.1주	4.2주	전주비(%)
연료탄	136.43	110.05	△19.3	101.60	99.25	△2.3
원료탄	240.90	184.54	△23.4	170.58	178.00	4.3
철광석	109.89	103.44	△5.9	103.62	96.88	△6.5

* 자료원: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S 등

** 연료탄(호주 뉴캐슬 FOB 기준, ICE 기준), 원료탄(호주 FOB 기준, Premium Low Vol), 철광석(중국 주요항 CFR 기준, 62% 분광)

- (유연탄) 美 트럼프 대통령의 자국 내 석탄산업 지원 행정명령 서명으로 인해 석탄 가격 하방 압력 발생
- (철광석) 美의 철강제품 추가관세 부과에 따른 中 철강산업 투자심리 약세 및 2개월 연속 소비자물가지수(CPI) 마이너스 기록 등 경기 부진 여파로 철광석 가격은 전주 대비 6.5% 하락세

주간 원자재 가격 동향 (4월 2주)

희소금속 | 美-中 상호관세 부과 조치 등 시장 불확실성으로 리튬 가격 ↓

품목	연평균 (U\$/톤)			주간평균 (U\$/톤)		
	'24년	'25.1~3월	전년비(%)	4.1주	4.2주	전주비(%)
페로망간	1,201	1,123	△6.5	1,080	1,080	-
탄산리튬	12,526	10,311	△17.7	10,123	9,769	△3.5
수산화리튬	11,398	9,619	△15.6	9,415	9,313	△1.1
코발트 (U\$/lb)	16.25	15.31	△5.8	19.50	19.50	-
산화 디스프로슘 (희토류)	257,362	231,589	△10.0	229,750	232,500	1.2
산화 네오디뮴 (희토류)	55,684	60,463	8.6	62,788	62,090	△1.1

* 자료원: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S 등

** 페로망간(중국 FOB 75%), 탄산-수산화리튬(중국 내수가격, 99.5%min, 56.5%min), 코발트(유럽 in-warehouse 99.8%min), 산화디스프로슘(중국 FOB 99.5%min), 산화네오디뮴(중국 FOB 99.5~99.9%)

☐ (탄산리튬) 美-中 양국 간 고율 관세부과로 시장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Rio-Tinto社의 아르헨티나 소재 Fenix 프로젝트의 탄산리튬 생산량 증대가 발표됨. 이는 이미 공급과잉인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하여 추가 하락을 초래함

에너지 | 美 상호관세 부과조치로 인한 경기둔화 우려 심화로 유가 ↓

품목	연평균 (U\$/bbl)			주간평균 (U\$/bbl)		
	'24년	'25년	전년비(U\$/bbl)	4.1주	4.2주	전주비(U\$/bbl)
두바이유	79.58	75.75	△3.83	74.42	64.27	△10.15
브렌트유	79.86	73.89	△5.96	71.98	63.67	△8.02
WTI	75.76	70.34	△5.42	68.67	60.67	△7.99

* 자료원: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등

☐ (원유) 美의 4.2일 국가별 상호관세 발표 이후 경기 침체 우려 지속으로 유가 급락

👉 4.9일 도널드 트럼프 美 대통령이 중국을 제외한 국가에 상호관세 적용을 일부 유예하겠다고 밝히며 유가 하락세가 일시 진정되었으나, 4.10일부 中이 對美 보복 관세율을 84%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하여 국제유가 하락 재개

👉 ▲사우디아라비아의 공식판매가격(OSP) 인하, ▲미국 에너지정보청의 유가 전망 하향조정 등이 유가 하락을 가속화
* 단, 현재로서는 과거 OPEC+ 생산 쿼터 대비 증산을 계속해 온 일부 산유국(이라크, 카자흐스탄 등)에 대한 경고적 성격일 수 있다는 인식 존재

월간 공급망

◆ 2025년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TE REPORT) 주요 내용

작성 KOTRA 워싱턴무역관

I. 개요

미 무역대표부(USTR)는 3.31일 「'25년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를 발간

* 매년 3.31일까지 미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되며, 미국 기업이 겪는 각국의 무역장벽을 기술한 연례 보고서

- 올해 보고서는 제40차 연례 보고서로, '24년 한 해 동안 미국 상품·서비스 수출, 외국인직접투자(FDI), 전자상거래 등에 영향을 미친 비관세 장벽들을 14개 항목별로 분류하여 다룸
 - 미국 무역법 제181조에 따라 매년 작성되며, 미국 정부가 무역장벽 해소를 위한 협상 및 조치의 기초 자료로 활용
 - 약 400쪽 분량으로 60여 개 교역상대국의 비관세 장벽 사례를 수록

바이든 정부 시절 상대적으로 축소되었던 디지털 무역 이슈가 올해 전면 재부각

- 전년도에 삭제됐던 디지털 무역장벽 항목들이 복원되었으며, 비시장 조치, 데이터 현지화, 지식재산권 침해 등에 대한 우려가 집중적으로 제기
- 한국은 '24년에 예고된 정책들이 '25년 본격 시행되거나 제도화됨에 따라 미국 측의 문제 제기가 강화되었으며, 방산·디지털·데이터·수의약품 분야 중심으로 비관세 장벽으로 다수 지적됨

II. NTE 보고서 주요 내용

디지털 무역장벽 항목의 복원

- 올해에는 무역장벽을 “공정경쟁을 왜곡하거나 저해하는 정부의 법·정책·관행 및 비시장적 조치”로 전년도보다 폭넓게 규정
- 전년도에는 제외되었던 유럽연합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디지털서비스법(DSA), 디지털시장법(DMA) 등이 올해 재등재
- 데이터 현지화 항목에서는 한국을 포함해 13개국이 언급되어 전년(3개국) 대비 큰 폭으로 확대되었으며, 미국 기업의 데이터 접근·이전 제한이 경제·안보 위협 요인으로 평가

❏ 비시장 조치 및 정부개입에 대한 비판 강화

- ❖ 중국, 인도, 러시아 등 주요국의 정부 보조금, 공기업 우대, 자국산 보호 조치가 국제 경쟁을 왜곡한다는 지적이 다수 포함
- ❖ 동 보고서는 비시장적 조치들이 “미국의 경제 및 국가안보 위험을 야기하며 경쟁력을 훼손한다”고 명시

❏ 지식재산권 보호 미흡에 대한 지적 확대

- ❖ 제약·바이오·디지털 콘텐츠 분야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불충분한 집행, 차별적 규제에 대한 문제 제기 강화
- ❖ 일부 국가는 지재권 침해 기업에 대한 제재가 미흡하거나, 사법적 구제 절차가 불투명하다는 평가를 받음

III. 2025년 NTE 보고서 내 한국 관련 주요 내용

❏ 수의약품 잔류허용기준(MRL) 정책

- ❖ 한국은 '24년부터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 기준 또는 유사종 기준을 인정하지 않고, 한국 자체 기준 또는 수입 허용치만 허용
 - ▶ 기준 부재 시 0.01ppm의 기본값 적용 → 미국은 이를 과학적 근거의 부족이라고 지적하며 시장 배제 수단으로 평가
- * '24년 MRL 변경 예정이었으나 시행 전 상태였음

❏ 수의약품 잔류허용기준(MRL) 정책

- ❖ 미국은 한국의 농업 바이오기술 제품 승인 절차가 과도하게 복잡하고 장기화되어 있으며, 중복 심사·자료 요구 등 비효율성이 수출에 장애가 된다고 지적
 - ▶ '24년 한국 국회에 제출된 유전자변형생물체법(LMO) 개정안에 대해 일부 진전으로 평가하나, 면제 범위가 제한적이며 실질 효과는 미미하다고 평가
 - ▶ 미국은 '24년 9월 한미 위생 및 식물위생(SPS) 위원회에서 관련 우려를 공식 제기하며, 보다 예측 가능하고 과학 기반의 규제 체계 필요성을 강조

❏ 클라우드 및 암호화 규제 인증(CSAP)

- ❖ 미국은 한국의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제도는 데이터 현지화, 한국 암호화 표준 의무화, 국내 인력 요구 등으로 외국 클라우드 제공 사업자(CSP)의 공공시장 진입을 제한한다고 언급
- ❖ 또한, 고급 암호화 표준(AES)의 일부 완화('24.9)를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전체 시스템이 외국 기업에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음을 비판

❏ 개인정보보호법(PIPA) 개정

- ❖ 미국은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중단 조치 및 기업의 전 세계 매출을 기준으로 한 행정벌 부과 가능성을 부각 → 글로벌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가중시키는 요소로 평가
- ❖ 또한, 고급 암호화 표준(AES)의 일부 완화('24.9)를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전체 시스템이 외국 기업에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음을 비판

☐ 국가핵심기술 관련 클라우드 금지

- ☞ 한국은 반도체·디스플레이·AI 등 핵심 기술 데이터를 대상으로 클라우드 저장·처리 전면 금지 조치 시행('24.7.) → 미국은 외국 CSP에 대한 직접적인 배제 조치로 간주

☐ 절충교역(Offset) 관련 요구

- ☞ 미국은 한국이 1천만 달러 이상 방산 계약에 관해 기술이전, 현지생산 등의 절충교역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 → 지식재산권 침해 위험 및 기술 유출 가능성으로 평가

* '24년 보고서에는 미언급되었으며, '25년에 최초 명시

☐ 디지털 플랫폼 경쟁 규제

- ☞ 전년도부터 제기된 대형 디지털 플랫폼 대상 사전 규제(ex ante obligations) 법안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며, 미국은 특정 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규제일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

IV. 현지 반응

☐ 미 산업계는 '25년 보고서에 디지털 무역장벽을 다시 상위 의제로 다룬 것에 대해 강한 환영의사 표명

- ☞ 특히, 바이든 행정부 시기 축소되었던 디지털 무역장벽 관련 우려가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다시 강조된 점이 주요 업계 단체의 지지를 받음
- ☞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 디지털 통상 담당 부회장 Jonathan McHale은 이번 보고서가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의 국경 간 흐름을 촉진하기 위한 미래 통상 협정의 협상 목표 설정과 집행 우선순위 수립을 위한 청사진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

공급망 더 알아보기

EU 옴니버스 패키지 주요 내용과 시사점

원문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EU 옴니버스 패키지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EU 집행위가 최근 발표한 **옴니버스 패키지**(‘25.2.26.)는 기업의 행정 부담과 규제를 완화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그린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수정안이다. 이 법안은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기업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EU 택소노미 및 InvestEU 등 주요 규제의 적용 시기를 연기하거나 의무를 대폭 완화하고 있다. ▲보고 대상 기업 축소, ▲적용 시기 연기, ▲인증서 구매 의무 연기 및 절차 간소화, ▲민사 책임 조항 삭제 등이 포함되었다.

☐ 옴니버스(Omnibus) 입법 개정안 도입 목적

- EU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심화, 기후변화 대응 필요성 증대에 따라 전략적 자율성 확보를 위한 '옴니버스(Omnibus) 법안'을 추진 중
 - ▶ 옴니버스 패키지는 기업의 행정 부담과 규제를 완화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그린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수정안으로 집행위가 제안, 현재 의회와 이사회가 협상하는 공동결정 절차 진행 중

☐ 주요 법안 개정 내용

법안	주요 개정 내용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 (CSDD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위 및 책임 축소) 간접 이해관계자 제외, EU 차원의 민사 책임 삭제, 면책 조항 추가 • (벌금 및 평가 주기) 전 세계 매출액의 최소 5% 과징금 하한 삭제, 정기 평가 주기를 5년으로 완화 • (시행 연기) 단계별 자국법 전환 기한 연기(2027~2030)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위 및 기한) 대기업 위주 의무 적용, 중소기업은 자발적 보고, 시행 시기 2년 연기 • (규모 및 기준) 규모 기준 적용, 업종별 기준 철회 및 보증 가이드라인 간소화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제 기준 및 산정) 연간 50톤 미만 면제 & 배출량 계산 간소화 • (신고 및 인증) 신고일 연기, 인증서 관리 비율 80%→50%, 인증서 구매 의무 1년 연기
EU 택소노미 (EU Taxonom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 및 대상) 옵트인 제도 도입 및 의무 공시 대상 축소 • (공시 기준) 서식 간소화 및 국제 표준 데이터 요구 완화

☐ 결론 및 시사점

- EU의 옴니버스 패키지는 **규제 완화와 절차 간소화**를 통해 기업 부담을 줄이고, 지속가능성 보고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설계
- EU가 중소기업을 규제 대상에서 상당 부분 제외토록 제안했지만, 중소 수출기업들은 공급망 실사와 지속가능성 공시와 관련해 여전히 철저한 대비가 요구됨

◆ 2025 미국·EU 그린성장 전략 변화와 시사점

원문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2025 미국·EU 그린성장 전략 변화와 시사점

글로벌 그린성장 전략 차원에서 미국과 EU가 최근 상반된 정책적 노선을 보이는 가운데, 공통적으로는 에너지 안보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 하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며, 파리협정 재탈퇴 등 글로벌 기후 리더십을 축소하는 행보를 보이며 자국 에너지 개발과 자립을 위해 화석연료 중심의 '반(反)그린성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EU는 최근 '옴니버스 패키지' 정책 제안으로 기존 그린딜 기조에 더해 규제 완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탄소중립 리더십을 동시 추구하는 '친(親)그린성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미국·EU 그린성장 전략 변화

- ① (미국) 미국의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리더십은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국제사회의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 움직임 자체는 지속될 전망
 - ▶ 미국 우선주의 기조하에 친환경 정책 후퇴 및 화석연료 중심의 산업지원 강화
- ② (EU) 글로벌 기후규제 강화를 주도하면서 기업규제를 완화하되, 청정산업 지원을 확대하여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하는 전략을 추진
 - ▶ 기업 및 금융기관 규제완화, 보조금 확대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 리더십 유지

☞ 정책 비교 및 파급 효과

- ① (정책 비교) 모두 자국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구하나, 미국은 화석연료 중심의 반(反)그린 정책으로 기후 분야 역할을 축소 중이며, EU는 규제를 완화하되 친(親)그린 기조를 유지
- ② (파급 효과) 미국의 그린성장 후퇴로 전기차 등 친환경 분야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나, 미국과 EU의 에너지 수요 증가와 규제 완화 추세로 원전(SMR)·플랜트·LNG선박 등 신규 시장 진출 확대 가능성이 존재

☞ 한국의 전략적 대응 방향

- ① 글로벌 공급망 리더십 변화에도 안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성장추구형' 탄소중립 대응 전략 수립 필요
 - ▶ 그린정책의 예측성·안정성을 확보하고 원전·조선 등 전략 분야의 국제 표준화와 수출 금융지원 등 민관협력 지원체계를 적극 확대
 - ▶ 기업은 ESG 경영을 내재화하여 분절화된 공급망 재편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양립형' 비즈니스 모델 구축 필요

공급망 소식통

◆ 2025 글로벌 신통상 포럼(~4.18.)

작성 KOTRA 통상협력팀, 개발협력실

사전모집 마감, 현장등록 가능

Global New Trade Forum

2025 글로벌 신통상 포럼

- 협상의 시간, 협력의 해법 -

2025년 4월 29일(화) 10:00 ~ 16:30
 코엑스(삼성동) 4F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부대행사 / 무료 상담부스 운영

1 관세대응 119

2 온라인관세확인시스템

3 CBAM헬프데스크

4 FTA활용센터

5 KSP민간재인제

6 해외시장뉴스 활용

7 공급망 컨설팅

연사 소개

Session 1. (협상의 시간) 격변하는 통상환경, 우리의 승부수는?

케이티 갈루트케비치
 맥라티(McLARTY)
 전무이사

*트럼프 17기 행정부 무역실장
 백악관 대통령 특별보좌관

장성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

양주영
 산업연구원
 경제안보·통상전략연구실장

이성우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통상본부장

이지형
 KOTRA
 경제통상협력본부장

Session 2. (협력의 해법) 글로벌 사우스

곽성일
 KIEP
 세계지역연구2센터장

빈준화
 KOTRA
 글로벌공급망실장

강준모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

김영
 시아맥스
 대표이사

권현정
 KAIST
 글로벌기술사업화실장

이지원
 KOTRA
 개발협력실 차장

▲ 참가신청(무료) ▲

KOTRA 통상협력팀
 02-3460-3317
 tpc@kotra.or.kr

글로벌 경제지표 ['25.4.15일 (화)]

작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과

환율

구 분	'23말	'24말	'25.3말	4/11	4/14	4/15	전일비	전년말비
₩/US\$	1,288.00	1,472.50	1,472.90	1,449.90	1,424.10	1,425.50	0.10	△3.19
선물환(NDF, 1월물)	1,286.80	1,473.80	1,470.00	1,447.60	1,421.40	1,422.90	0.11	△3.45
₩/CNY	181.37	202.38	203.06	196.60	194.43	195.24	0.42	△3.53
₩/¥100	912.25	932.67	989.70	1,007.60	999.20	996.90	△0.23	6.89
¥/US\$	141.19	157.88	148.82	143.90	142.52	143.00	0.34	△9.42
US\$/EUR€	1.1105	1.0429	1.0832	1.1259	1.1399	1.1344	△0.48	8.77
CNY/US\$	7.1092	7.2992	7.2517	7.3231	7.3033	7.3092	0.08	0.14

* '24년 평균 환율: (₩/US\$) 1364.8원, (₩/¥100) 900.8원 / '25년 평균 환율('25.1.1일~현재): (₩/US\$) 1453.5원, (₩/¥100) 960.6원

유가·원자재 (원유 \$/배럴, 철광석·비철금속 \$/톤)

구 분	'24년 최저(해당일)	12/31('24년)	4/14	4/15	전일비	'24년 최저비	전년말비	
원유(두바이)	70.53(11.18일)	75.94	66.24	66.61	0.4	△3.7	△9.3	
					0.6%	△5.3%	△12.3%	
철광석	89.35(9.23일)	100.00	99.45	99.95	0.5	10.6	0.0	
					0.5%	11.9%	0.0%	
비철금속	구리	8,085.50(2.12일)	8,706.00	9,212.50	9,094.00	△118.5	1008.5	388.0
						△1.3%	12.5%	4.5%
	알루미늄	2,110.00(1.22일)	2,516.50	2,355.00	2,333.50	△21.5	223.5	△183.0
						△0.9%	10.6%	△7.3%
	니켈	14,965.00(12.19일)	15,100.00	15,175.00	15,360.00	185.0	395.0	260.0
						1.2%	2.6%	1.7%

반도체

구 분	'23말	'24.11말	'24.12말	'25.2말	'25.3말	4/10	4/11	4/14	4월(~14)
D램(8G) 현물가(\$ 기간평균)	1.74	1.84	1.75	1.73	1.92	1.95	1.95	1.95	1.95
(%, YoY)	△14.8	10.8	0.5	△11.1	0.0	1.6	1.4	1.4	0.9
낸드(128G) 현물가(\$, 기간평균)	6.38	6.68	6.63	6.62	6.85	6.95	6.95	7.00	6.92
(%, YoY)	△2.3	4.0	3.9	3.2	7.0	8.5	8.5	9.3	8.2

SCFI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

구 분	12/29('23년)	12/27('24년)	3/28	4/3	4/11	전주비(4/3)	전년말비
SCFI	1759.57	2460.34	1356.88	1392.78	1394.68	0.1%	△43.3%

BDI (Baltic Dry Index, 발틱운임지수)

구 분	12/22('23년)	12/24('24년)	1/2	4/10	4/11	4/14	4/15	전주비(4/14)	전년말비
BDI	2094	997	1029	1269	1274	1282	1263	△1.5%	26.7%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

Korea Center for Global Industrial Supply Chain

문의 KOTRA 글로벌공급망실 gvc_monitoring@kotra.or.kr
 한국무역협회 gvc_research@kita.or.kr



메일 구독(수신) 신청



피드백하러 가기

주관기관



협력기관



본지의 내용은 산업부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